

MY BIBLE FIRST B28

새 둥지 천사가 전해준 특별한 비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그분이 들어 오시도록 초청해보세요.

목차



01 성경말씀 회상하기

02 중심생각 연결하기

03 천연계로 확장하기

04 성경학습활동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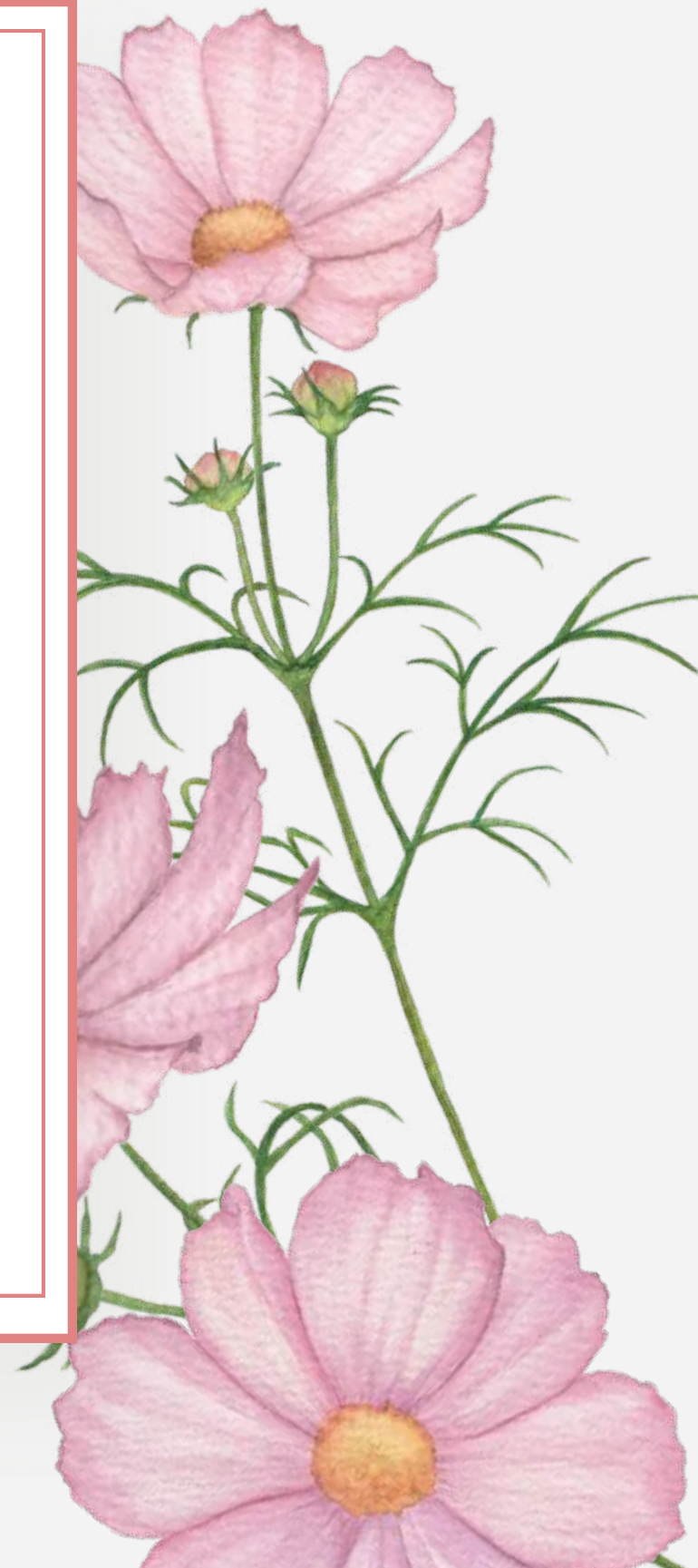
05 성경학습활동 2

하늘의 천사들과 온 우주의 친구들은 이
일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다고요?

예수님은 죄와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
작은 아기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두가 놀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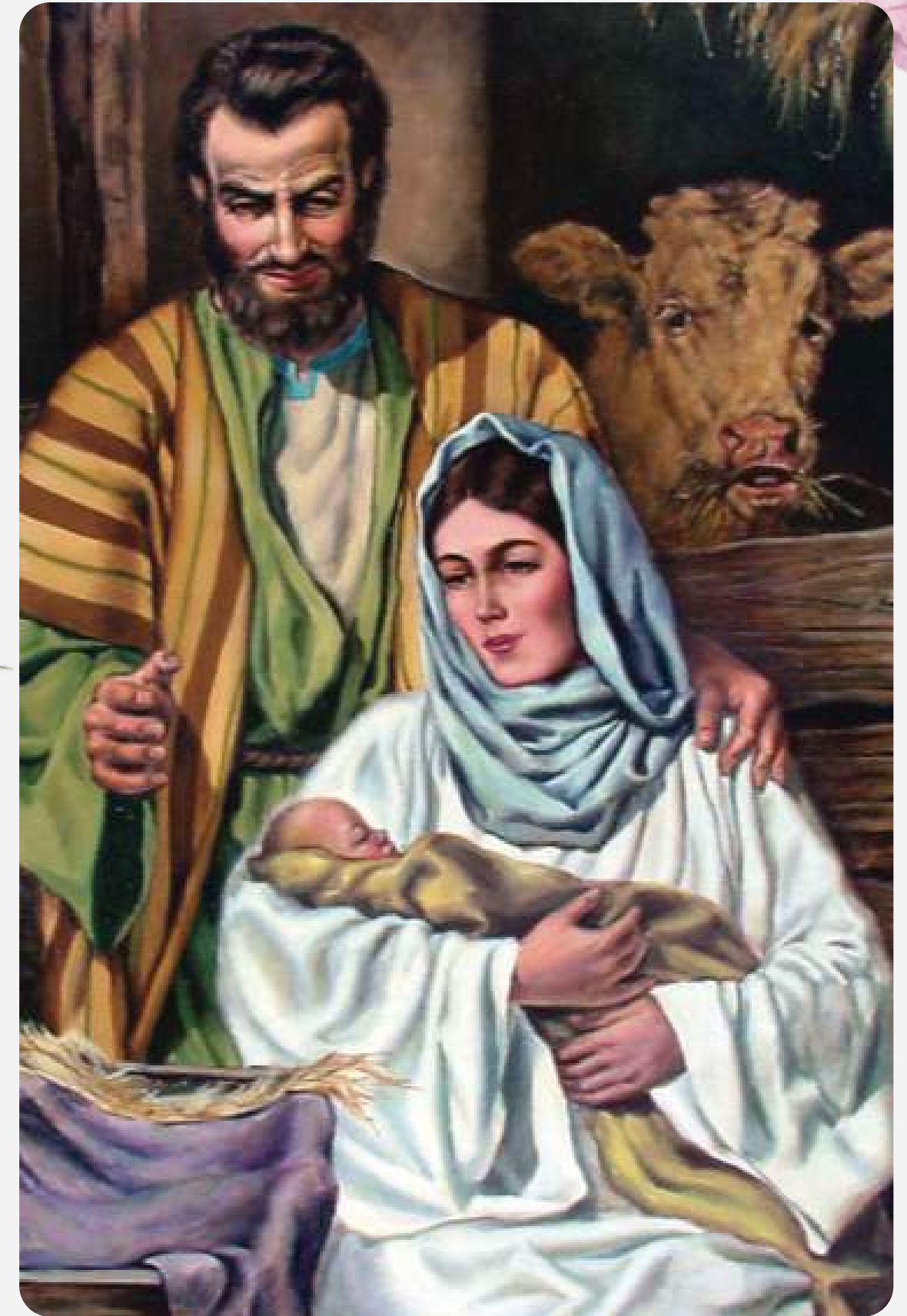


예수님은 멋진 왕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에서는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배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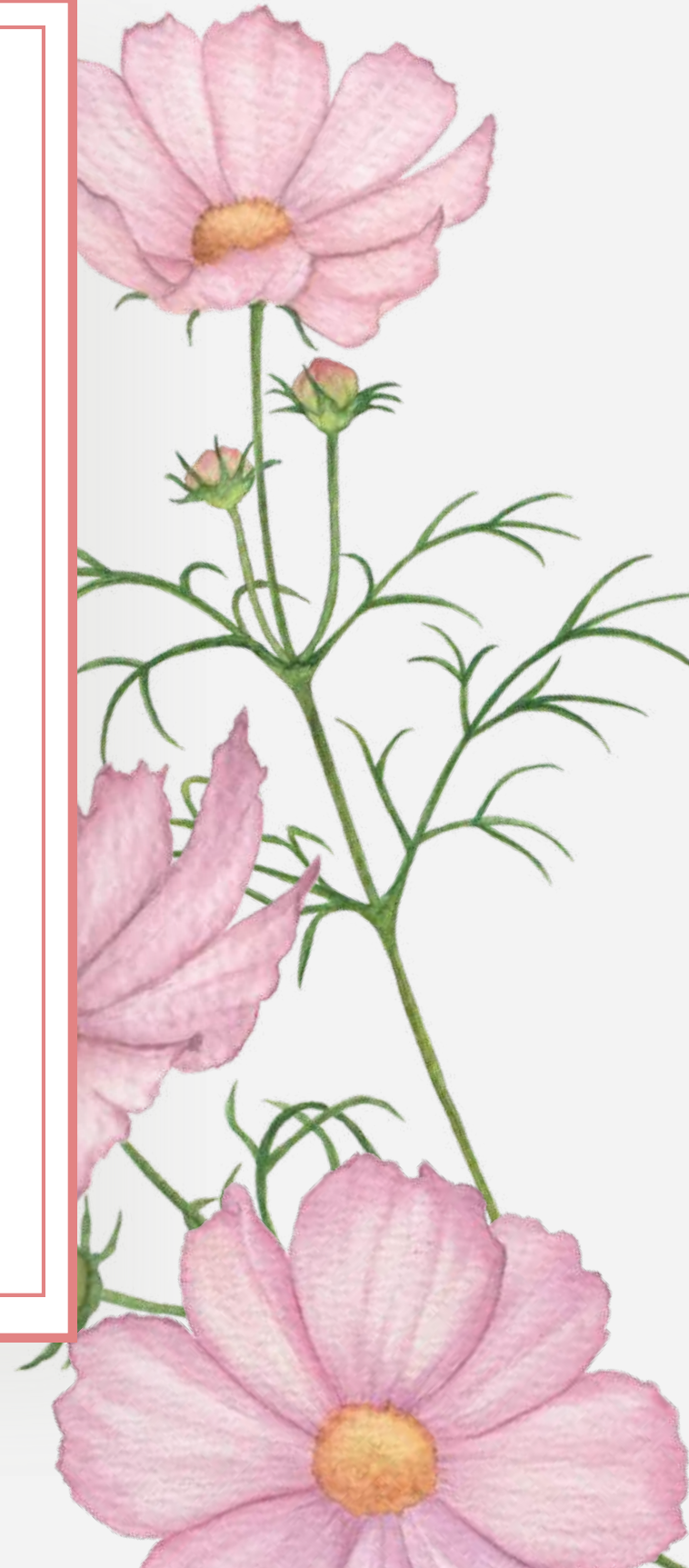
예수님은 천사들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실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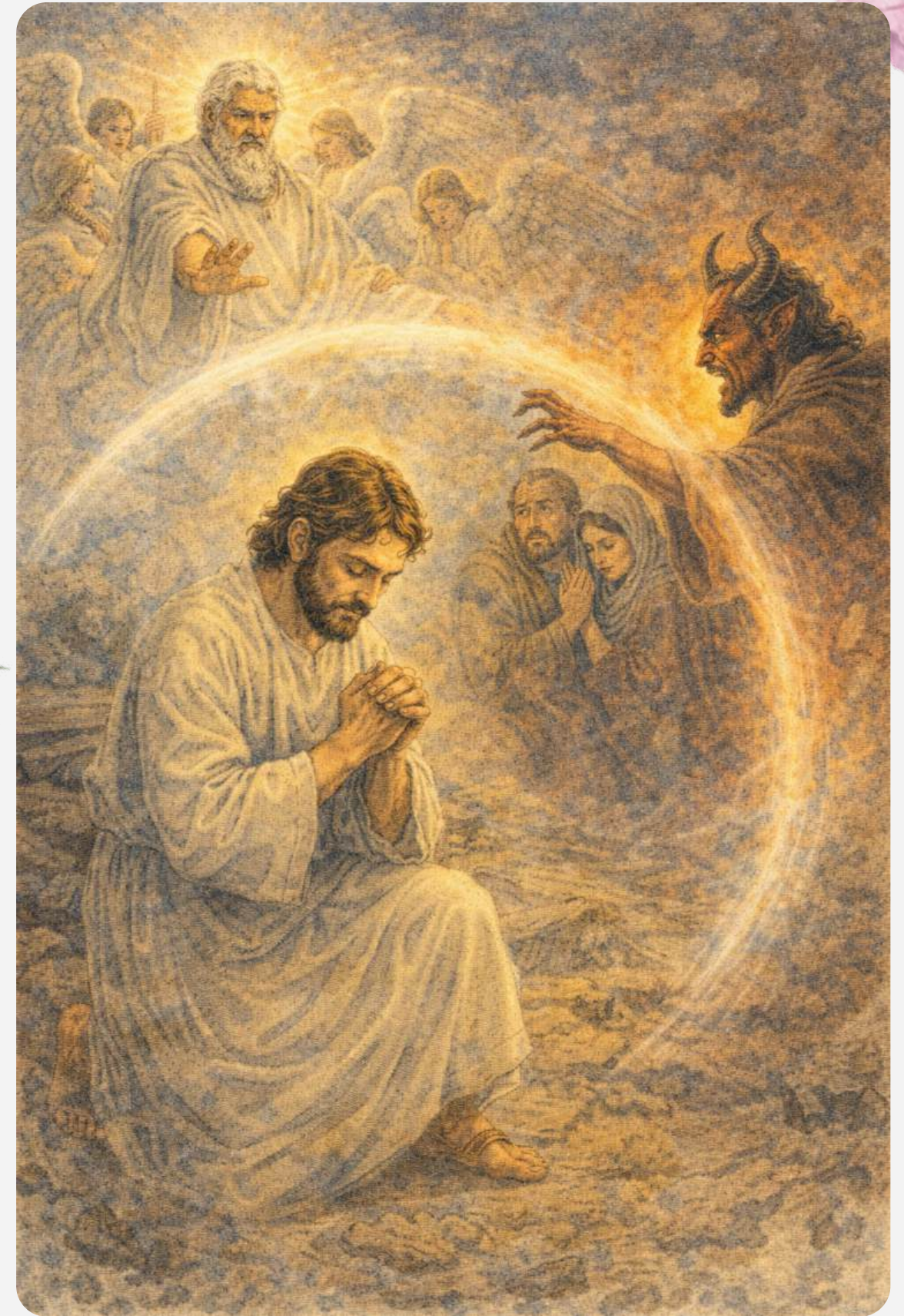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쉬운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우리과 똑같은 길을 걸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를 바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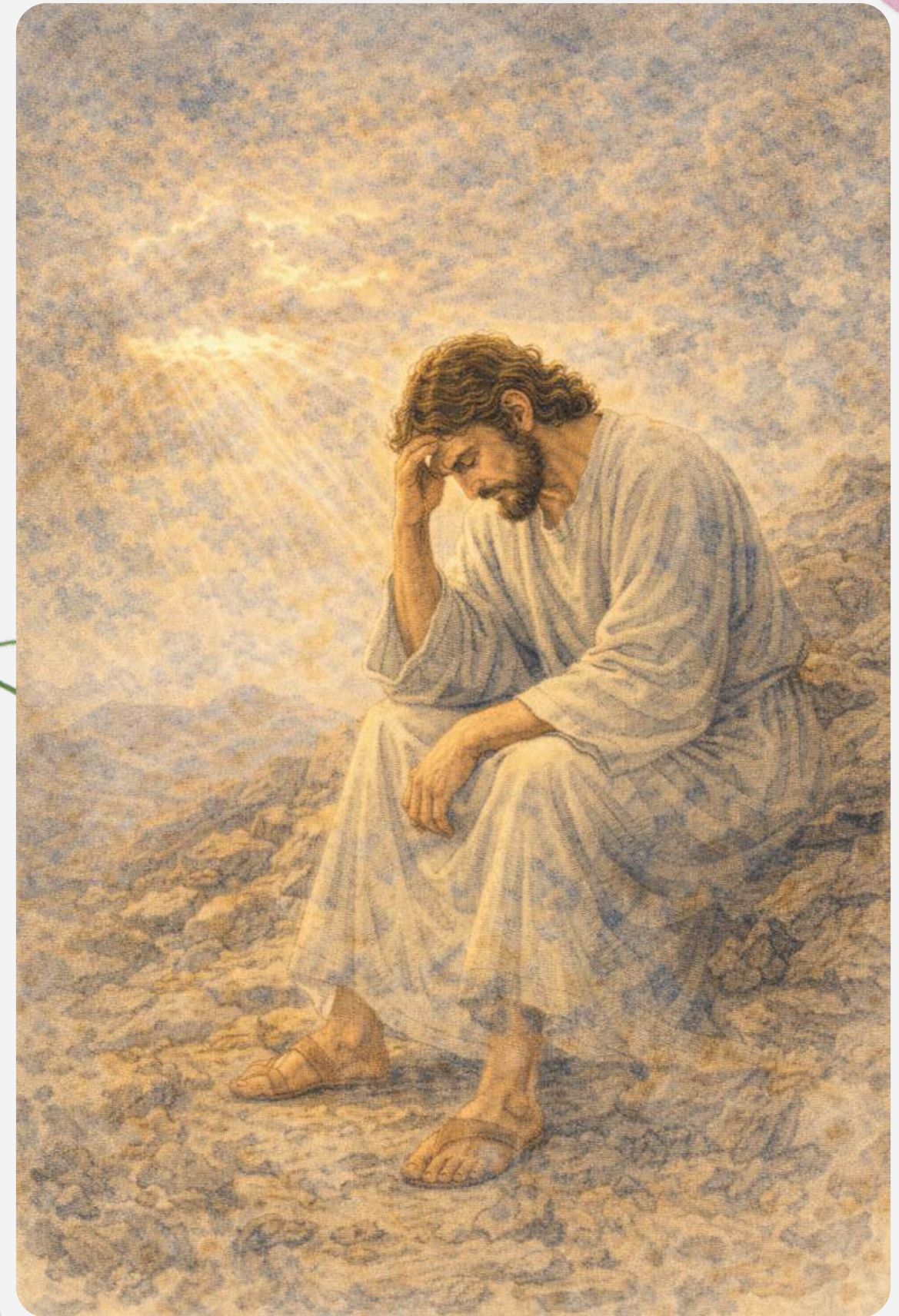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세요.



사탄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면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죄를 지으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게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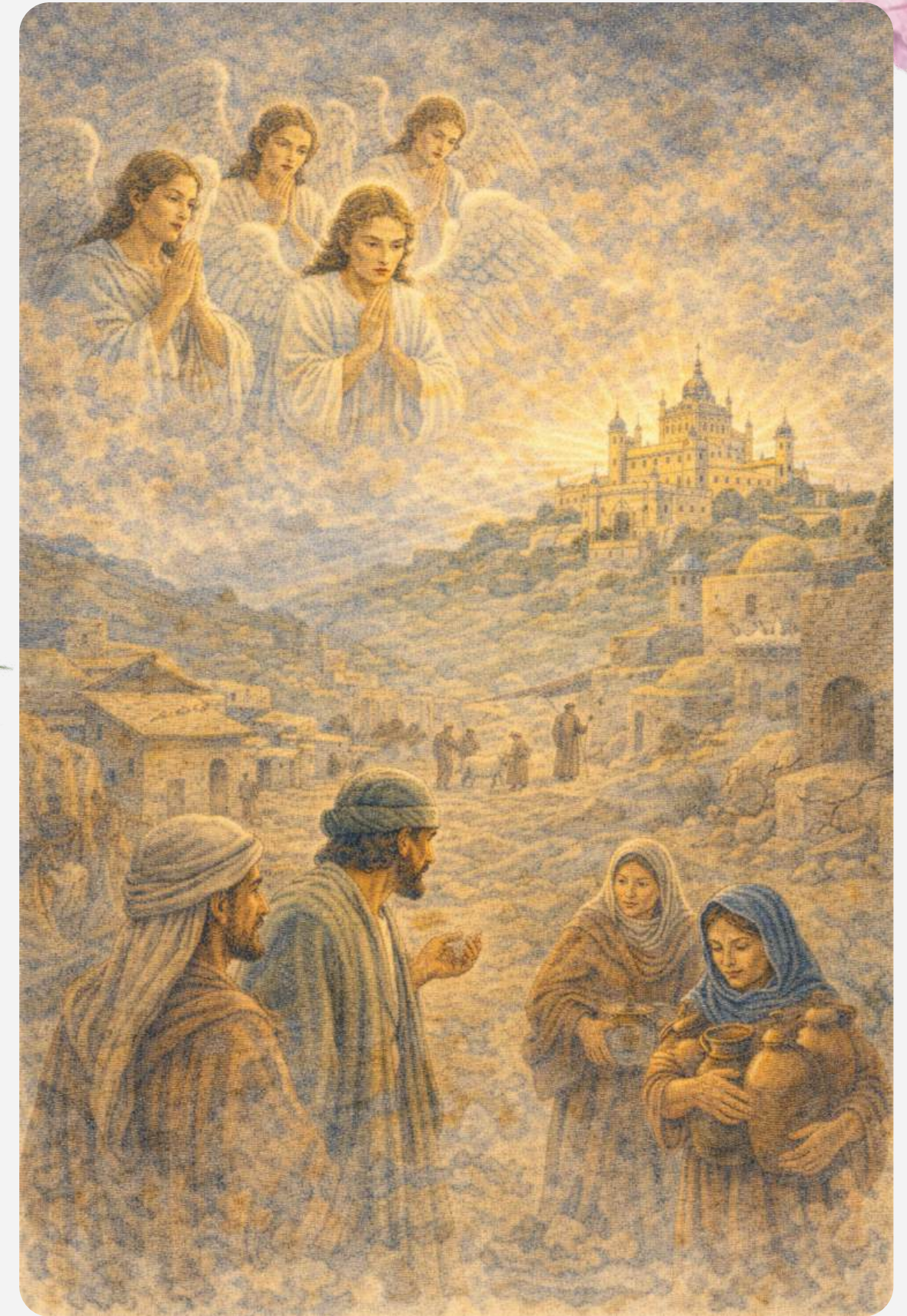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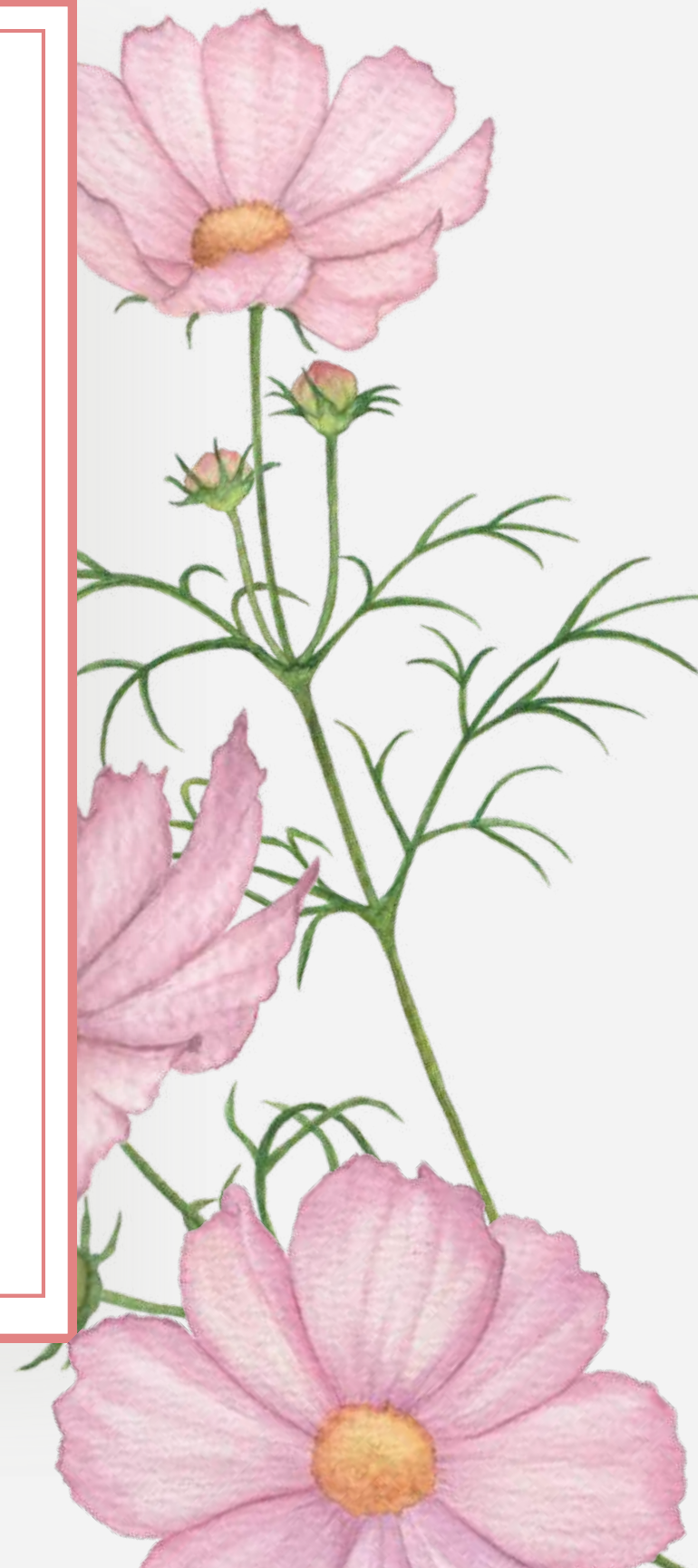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애썼어요.



천사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아주 멋진 궁전도 예수님께는
필요하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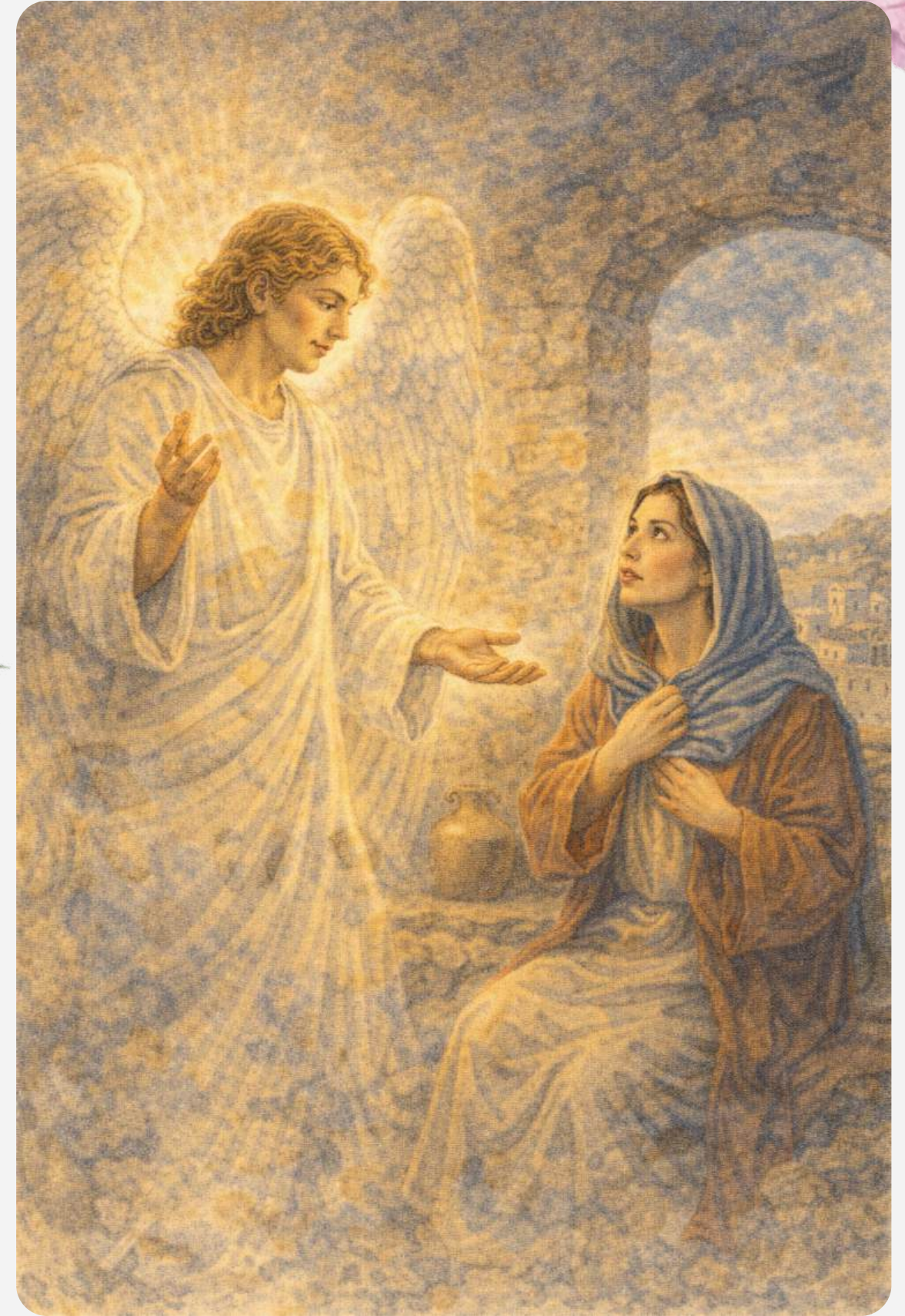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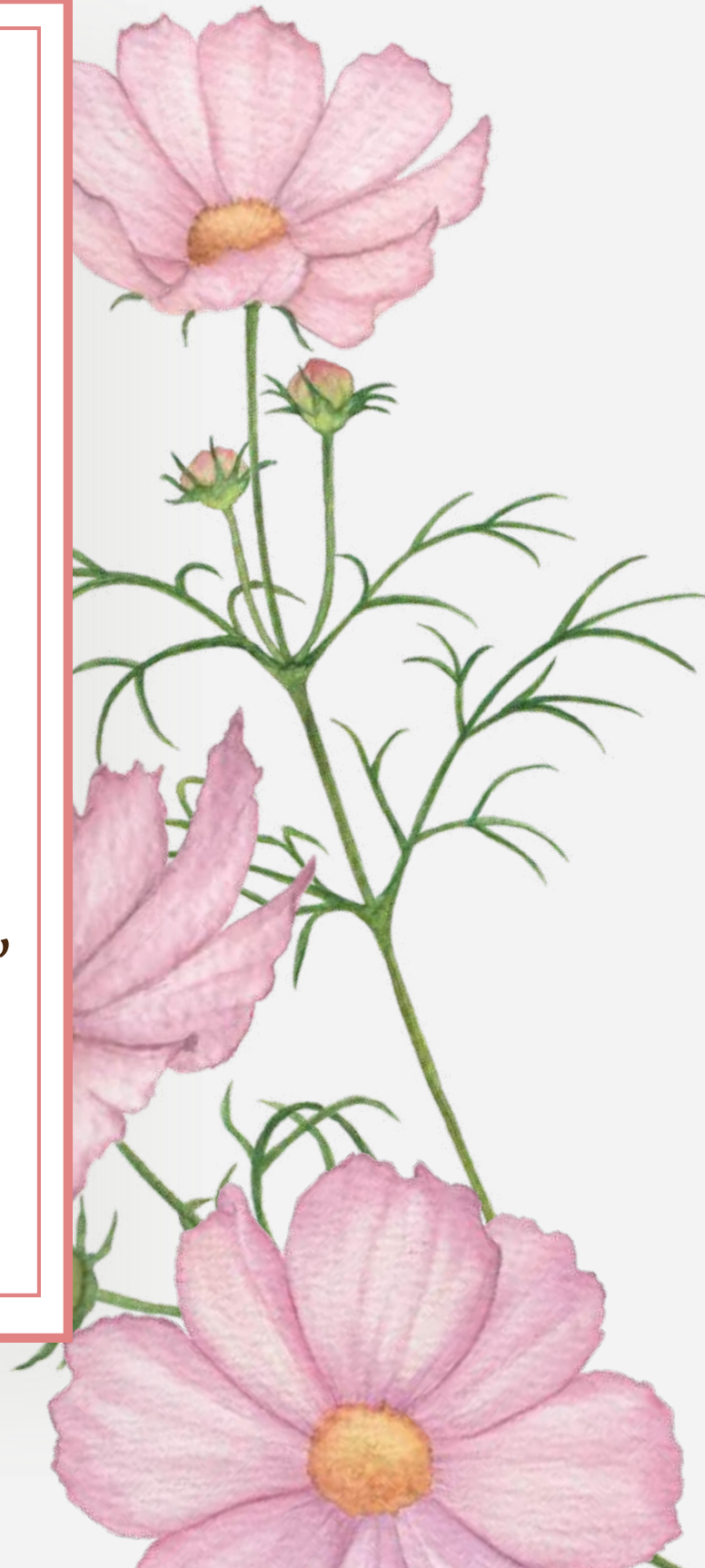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줄도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어
마리아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
살던 젊은 처녀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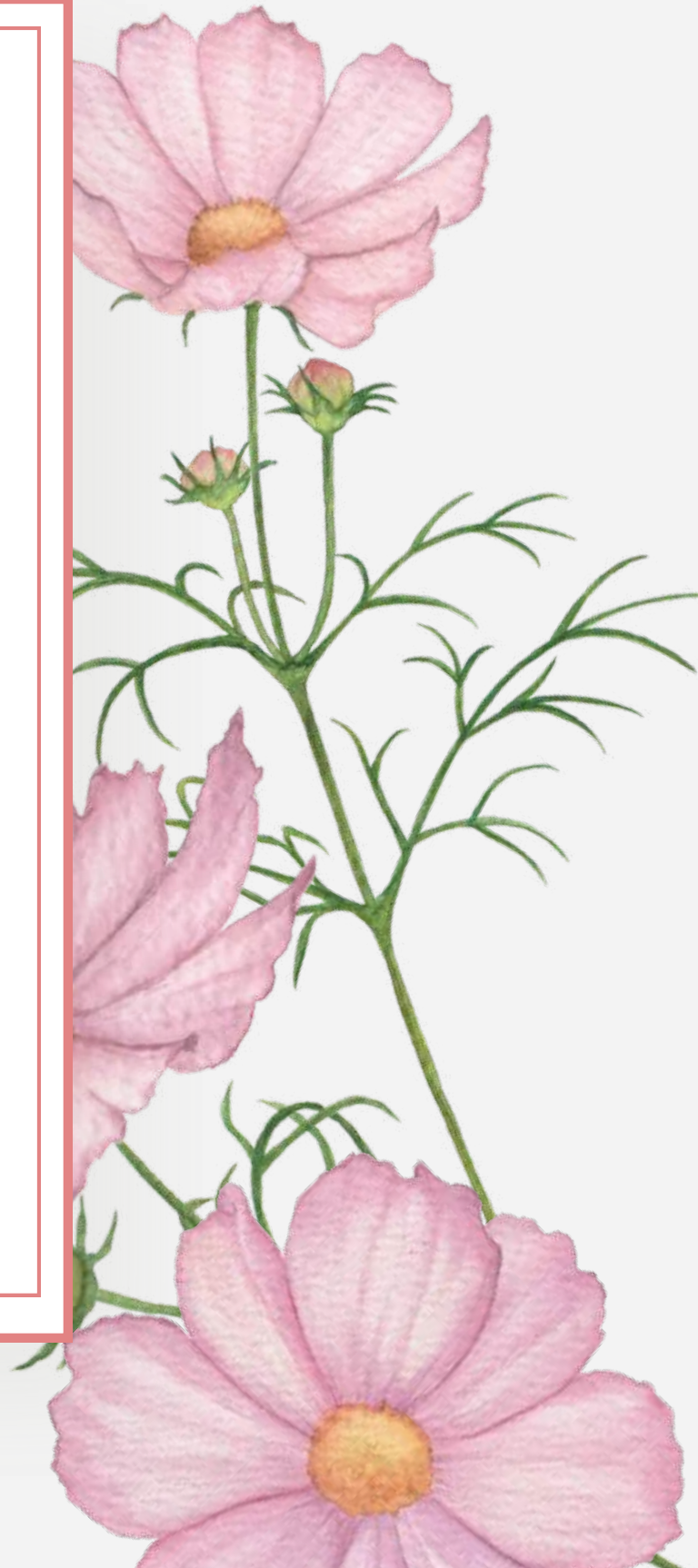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놀라고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어요.

엘리사벳을 찾아간 마리아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어요.

두 사람은 모든 일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했
어요.



요셉은 마음이 매우 복잡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요셉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셉은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고, 아기 예수님을 잘 돌보는 책임을 맡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멀리 여행했지만
머물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날 밤,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은
조용히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보세요.
바쁜 생각들과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머무르실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시도록 진심으로 초청해보세요.



새 둥지



새들은 알이 태어나기 전 둥지를 준비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자리를 준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궁전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곳보다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선택하신 답니다.

아기 새를 위한 특별한 집



새들은 아기를 낳기 전에 먼저 집, 둥지를 준비해요.

나무 위에 짓는 새도 있고,
땅이나 바위 위에 짓는 새도 있어요.
암컷 새는 풀과 나뭇가지로
알을 안전하게 지킬 자리를 만들어요.

둥지는 멋지지 않아도 아기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새들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어요.

새들은 무엇으로 집을 지을까



새들은 주변에서 찾은 재료로 둥지를 만듭니다.

나뭇가지와 풀은 뼈대가 되고, 깃털과 부드러운
섬유는 따뜻하게 해 줘요.

진흙은 서로 붙여 주고, 어떤 새들은 거미줄로
단단히 묶어요.

그래서 둥지는 그냥 모아 놓은 게 아니라,
튼튼하고 따뜻하게 만든 똑똑한 집이에요.

지빠귀 둥지의 '진흙 라이닝' 기술



지빠귀는 바위나 단단한 곳에 둥지를 지어요.

암컷 새가 풀과 나뭇가지로 틀을 만들고,
진흙으로 단단하게 해요.

안쪽은 부드러운 풀로 깔아 알을 보호해요.

겉은 튼튼하고 속은 포근해서
비바람에도 안전한 집이 돼요.

03 천연계로 확장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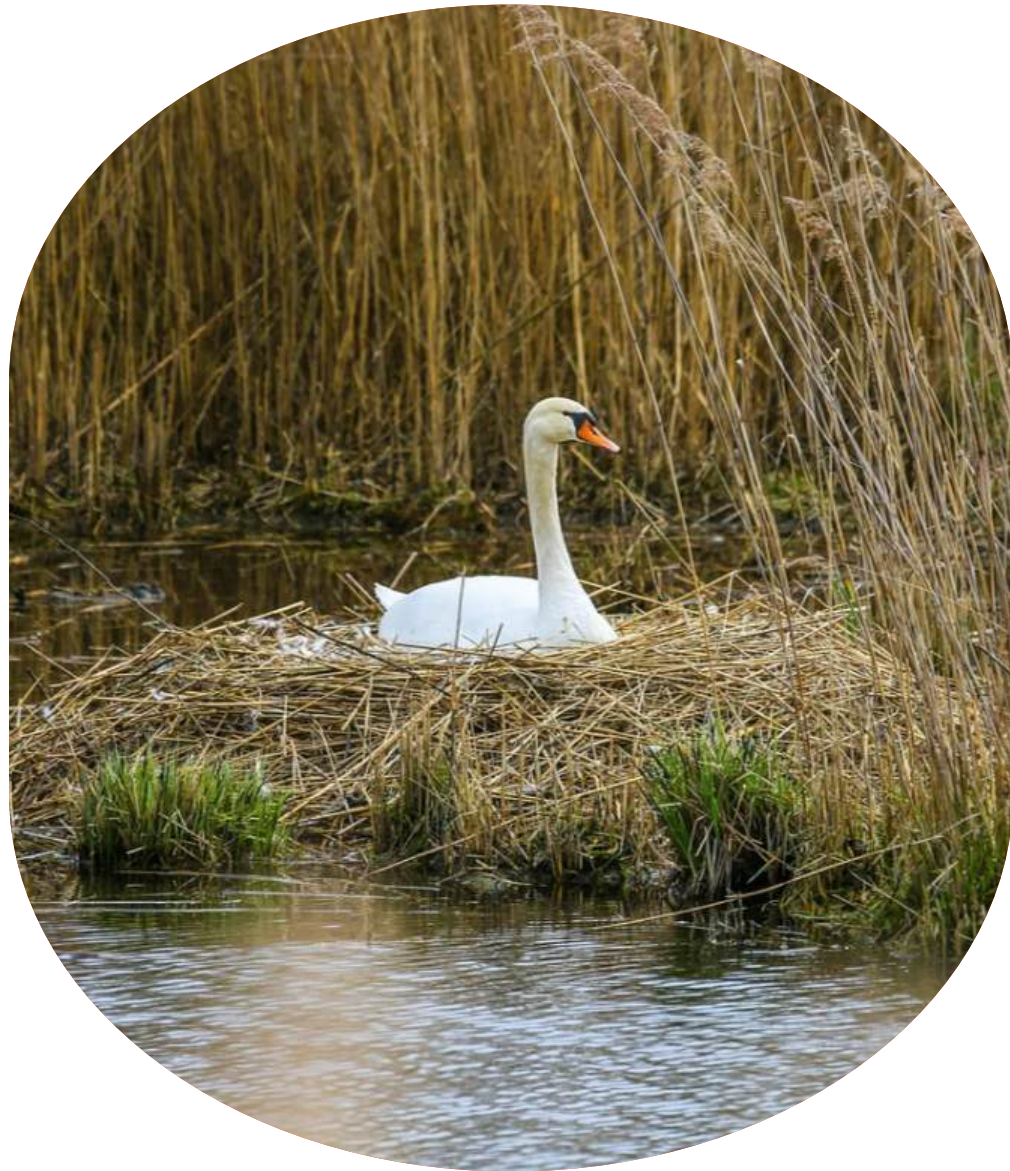


호랑지빠귀



호랑지빠귀 둥지

백조의 거대한 둥지와 '매년 보수' 습관



백조는 땅 위에 큰 둥지를 만듭니다.
나뭇가지와 풀을 쌓고, 알을 낳기 좋게
부드럽게 정리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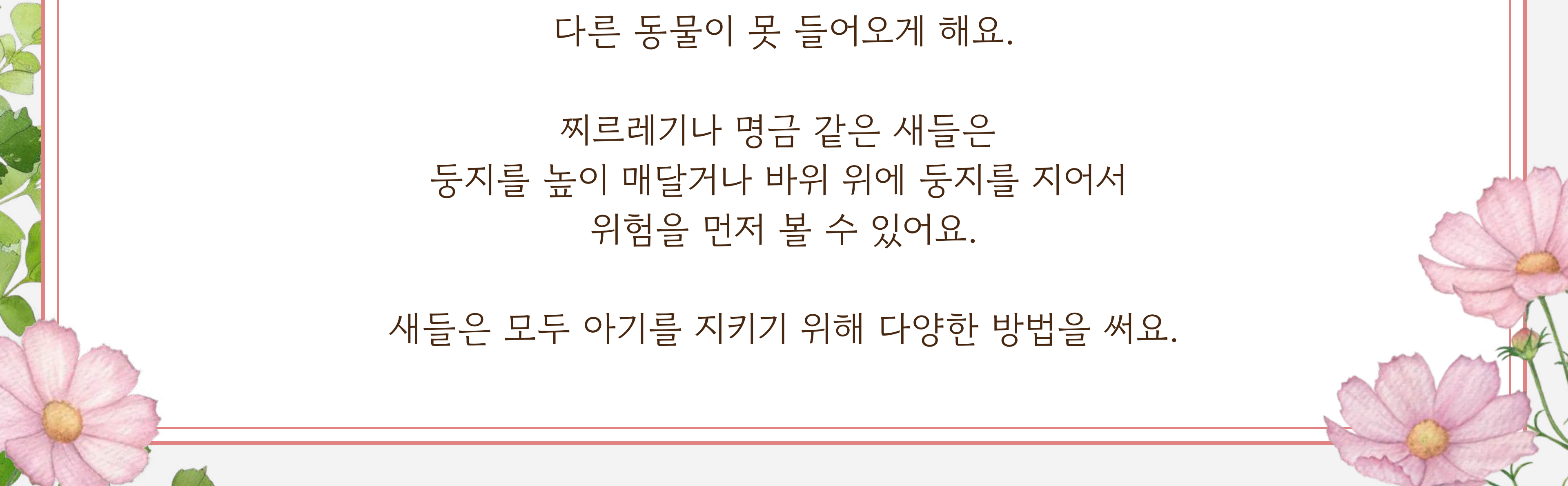
큰 둥지는 알이 물에 젖지 않게 도와주고,
따뜻하게 지켜줘요.
백조는 같은 둥지를 해마다
조금씩 고쳐 쓰기도 해요.

구멍 둥지와 매달린 둥지라는 두 전략

박새나 파랑새 같은 새들은 나무 구멍 안에 둥지를 만들어
다른 동물이 못 들어오게 해요.

찌르레기나 명금 같은 새들은
둥지를 높이 매달거나 바위 위에 둥지를 지어서
위험을 먼저 볼 수 있어요.

새들은 모두 아기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써요.



03 천연계로 확장하기



박 새



파 랑 새

03 천연계로 확장하기



찌르레기



명금

03 천연계로 확장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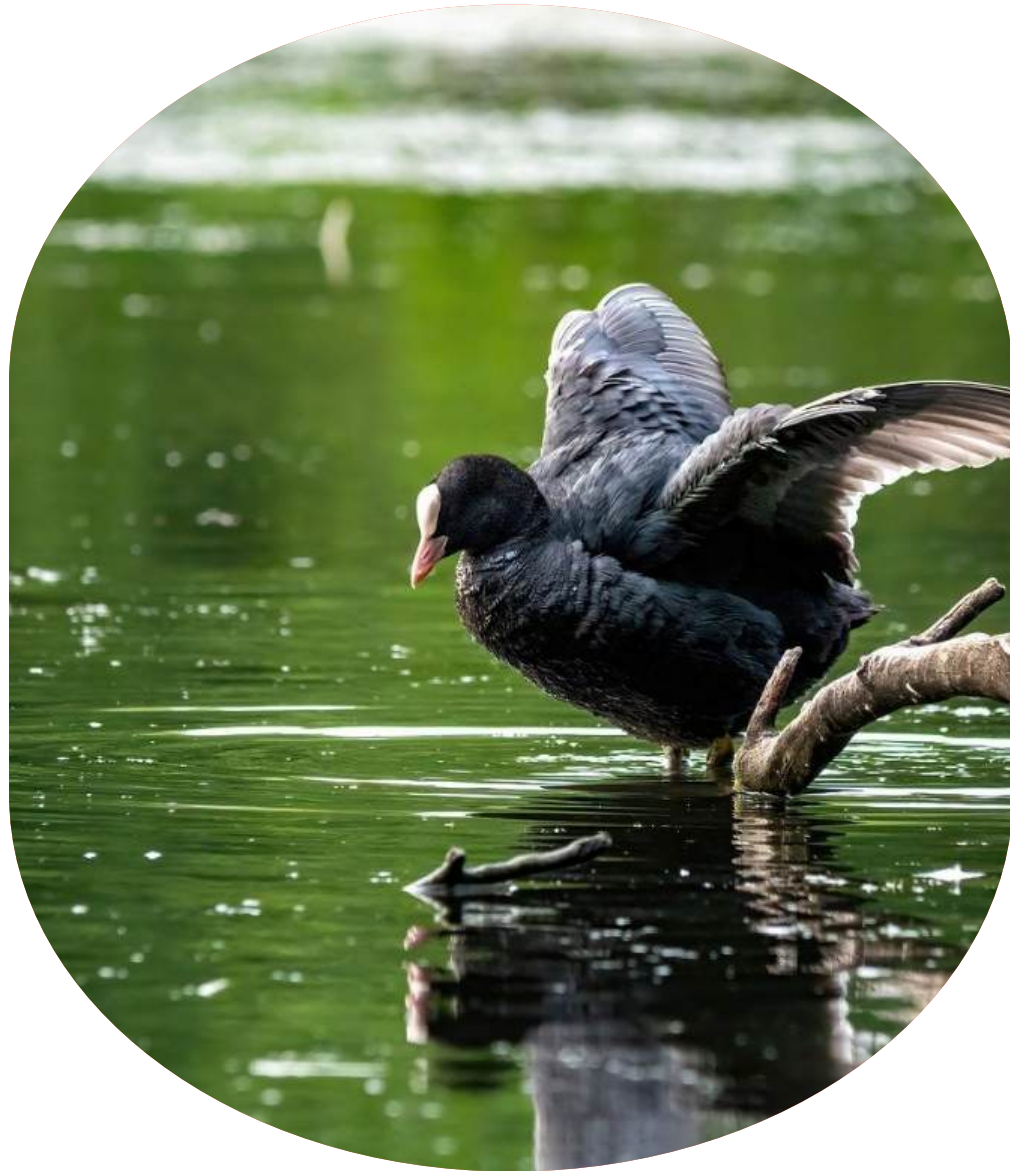


나무 구멍 속 둥지



매달린 둥지

물 위에 떠 있는 둥지



물닭과 논병아리는 땅이나 나무가 아니라 물 위에 둥지를 만듭니다.

물풀을 엮어 둥지를 띄우고, 줄기에 묶어 떠내려가지 않게 해요. 물 위 둥지는 안전하지만, 자주 고쳐야 해요.

이 새들은 힘든 환경에서도 알을 지킬 자리를 만들어 내요.

흙으로 만든 작은 방



제비는 진흙을 조금씩 쌓아 올려
입구를 작게 만들어 더 안전하게 해요.

이 둥지는 작은 방 같아서
아기를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켜줘요.

자연에는 생명을 지키는 여러 가지 지혜가 있어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새들은 알을 낳기 전에 둥지를 먼저 만들어요.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방을
찾지 못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사람들은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들처럼
예수님을 맞이할 자리를 미리 준비해요.
“예수님, 제 마음에 오세요.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마굿간에서 드리는 생일카드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주 작은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낮고, 조용한 자리였어요.
태어나던 날, 마굿간이 비어있어 준비되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도 비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을 기뻐하세요.
오늘 활동을 통해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준비에 참여해 보세요.

활동 준비물



마굿간 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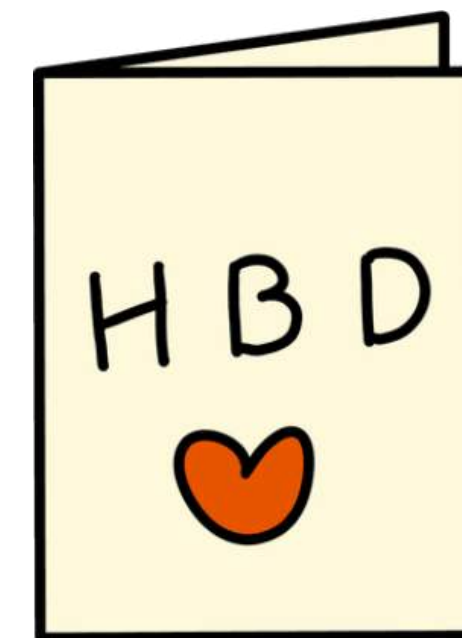
등장인물 도안



가위 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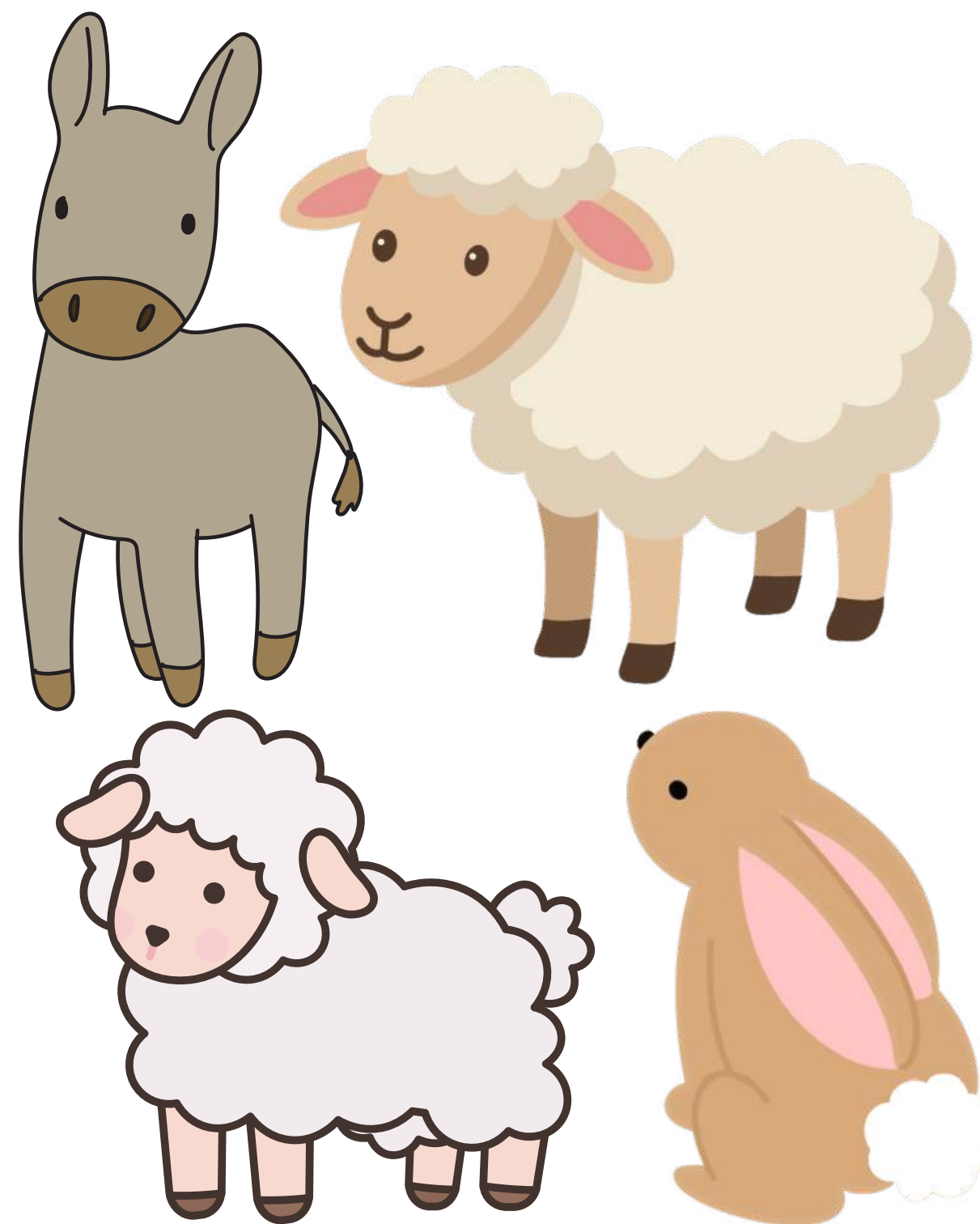


마음 카드 단어



생일 카드

도안 준비하기



마음 카드

기다림

순종하기

전도하기

순종하기

사랑하기

감사하기

나누기



활동방법

1. 성경이야기 다시 들려주기

- 마굿간은 어떤 곳일까?
- 깨끗하고 멋진 곳일까?
-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마굿간에 오시기로 선택하셨어요.
- 왜일까요? 그곳은 비어있었고, 열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2. 마굿간 꾸미기

- 생일카드 빈 공간에 예수님이 태어난 마굿간의 모습을 그려 붙여 꾸민다.

3. 카드쓰기

- 마굿간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어요. 이 빈 공간은 우리 마음을 뜻해요.
- 아이들이 마음 단어 카드를 고른다.
(기다림, 사랑하기, 순종하기, 감사하기 등 원하는 마음 단어를 선택한다.)
- 필기구를 이용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마음 단어카드를 이용하여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실지 편지를 써본다.

4. 생일카드 발표하며 마무리 하기

- 아기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감사와 순종의 제 마음의 자리 오셔서 채워주세요.
- 마굿간처럼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왜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을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장면을 꾸며봅시다.



예수님께 전할 마음 카드를 선택해 붙여 주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실지 편지를 써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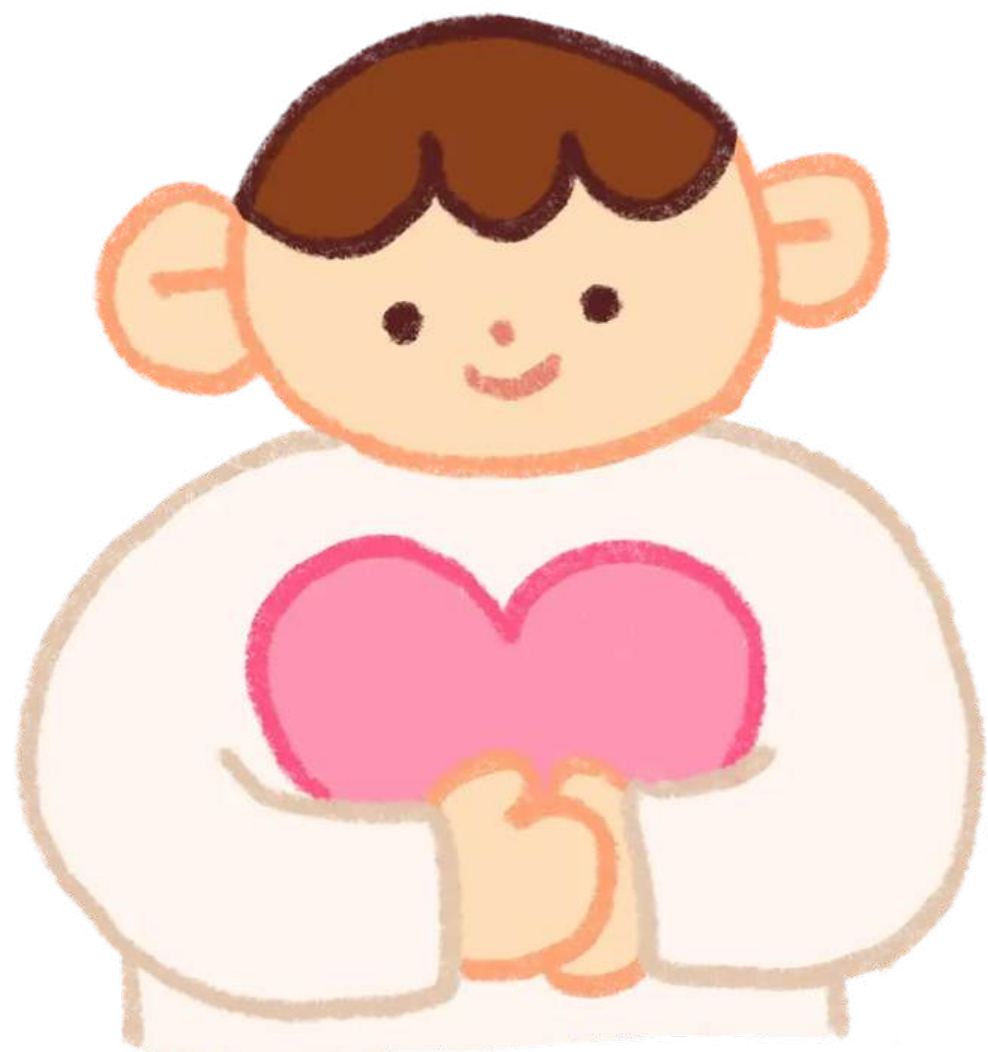
편지 발표하기



함께 기도해요

“예수님,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 마음이 작아도 괜찮아요.
마굿간처럼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어요.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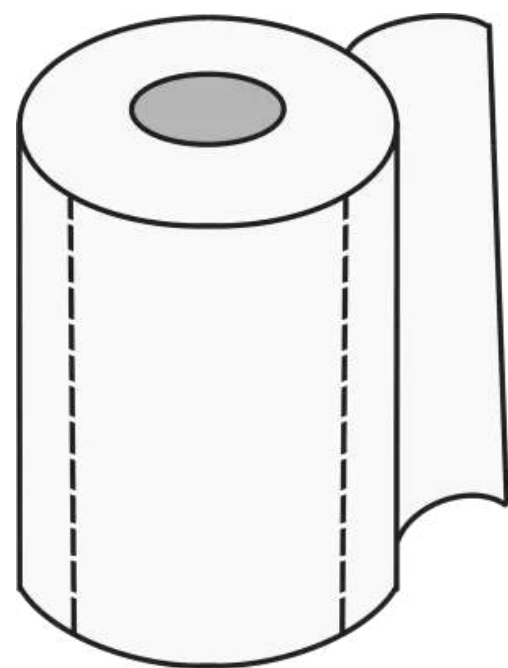
예수님을 위해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요.



우리는 살아가며 죄를 지을 수 밖에 없어요.
나쁜 생각들과 걱정으로 가득차 더러운 마음이 되죠.
오늘 활동을 통해 어지럽고 바쁜 내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고, 예수님께 마음을 맡길 때
깨끗해지는 변화를 경험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시도록 진심으로 초청해보세요.

활동 준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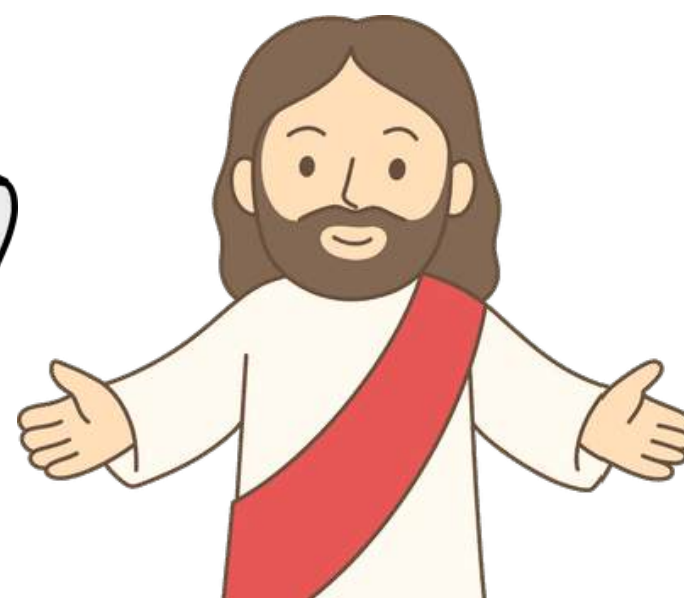
키친타올



유성마카



수성 마카



예수님 모습 도안



투명대야

활동자료



하트 도안

*크기 조절하여 프린트하기



활동자료

기억절 카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활동방법

1. 활동 소개하기

- 우리 마음은 눈에 보일까?
- 기쁠 때, 바쁠 때, 속상할 때 마음은 어떤 모습일까?-
- (키친타월을 보여주며) 이 종이는 오늘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 볼 거예요.

2. 내 마음 표현하기

(유성마카로 하트 그리기)

- 하트 '지금 내 마음' 이야
- 이 하트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진짜 내 마음이에요.

3. 수성 마커로 죄 지는 마음 색칠하기

- 우리의 마음을 죄로 가득 찰 때가 있어.
- 친구를 질투한 마음으로 화가난 적이 있나요?
- 힘든 일을 모른척 한 적 있어요?
- 숙제, 친구 생각, 걱정, 속상한 마음...
- 우리 마음이 복잡할 때 이렇게 어지러울 수 있어요.
- 죄된 마음을 여러 색으로 자유롭게 칠하기

4. 예수님 물 대야에 종이 담그기

(한 명씩 천천히 담그기)

- 이 물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 예수님께 마음을 맡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시간이 지난 후 꺼내기 (색이 빠진 종이를 함께 관찰하기)
- 아까랑 어떻게 달라졌지?
-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면 어떤 마음이 될까?

예수님을 위해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요.

5. '새 마음'에 대한 성경 말씀 나누기

-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싶어 하세요.
- 함께 성경절을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
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요한계시록 3장 20절)

6. 하트 종이에 말씀 붙이기

- 깨끗해진 마음에 기억절을 맞춰 완성해 보자.
- 기억절 조각 맞추기
-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조각을 순서대로 붙이기
- 함께 읽어볼까?
-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바쁘고 어지러운 마음을 맡겼어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예요.

예수님을 위해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요.



우리 마음은 눈에 보일까?

예수님을 위해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요.



키친타올에 내 마음을 그려봐.

유성 매직으로 그리기

예수님을 위해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요.



죄 지은 우리 마음 색칠하기

수성 매직으로 그리기

예수님을 위해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요.



예수님께 마음을 맡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물 대야에 하트 넣기

예수님을 위해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싶어 하세요.
새 마음에 말씀을 붙여 보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을 위해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바쁘고 어지러운 마음을 맡겼어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예요.
매일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공간을 만들고, 진심으로 초청하여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시도록 진심으로 초청해보세요.



MY BIBLE FIRST

Thank you

행복하고 거룩한 안식일 보내세요~